

단합으로 번영하는 연천분회

〈취재부〉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65년도의 부업 형태에서 벗어나 10여년간에 급성장하여 현재는 기업화, 전업화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의 증가 1, 2, 3차 경제 5개년 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인한 국민소득 향상, 인구의 도시 집중, 단백질식품의 소비급증, 산업 및 고속, 비상도로 수송망의 확장으로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번두리나 인근 산간지역 등 특수지역에서도 대규모사육이 가능하다는 점, 국민식생활, 국민체위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독립된 전망있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타육류의 부족현상이 계속일어날 전망이라는 점 때문에 소규모 양계가의 증가와 더불어 재투자가 확대되어 점점 기업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러나 유통면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이어서, 매년 계절성을 안고서 곧잘 원가 이하 판 매라는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원가조차 산출해 내기 힘든 때에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는 세금까지 부가되게 되었으니 생산자는 과거의 안이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양계경영을 해나가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업계 종사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태도로서, 축산행정, 본회, 지부분회, 제우회, 기타 모임이나 단체가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생산 가공, 판매, 소비까지 깊숙히 참여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면서 한 산업의 역군으로서 또한 양계가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양계인 모두의, 복지향상의 지름길인 아닌가 생각되며 최근 대

한 양계협회를 주축으로 각도 지부와 분회의 증가 및 확장추세와 더불어 이번 연천분회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목표달성을 향한 또 한걸음이라고 연천을 향해 달리는 차속에서 생각했다.

◎첫째로, 전국 1,355,198호 양계식구가 연천분회와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만 생산자로서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업계는 평균 10월부터 2월까지 산물시세가 원가이하로 하락할 정도의 경기침체를 겪으며, 4월부터 9월까지 한 철의 이익으로 이때의 손실을 메꾸게 된다.

또한, 생산자가 시장정보에 어둡고, 상술에 미숙한 것을 이용, 상인이 온갖 횡포를 부려들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만 하는 딱한처지가 바로 우리 자신의 입장 것이다.

이러한 실정이나, 특히 자유시장경제하에서는 영세한 생산자 개인의 활동은 언제나 불리한 거래방법에 처하게 되며, 약간의 가격변동에도 큰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자 자신의 잘못에서도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만약 연천분회와 같이 지역간의 동일업자끼리 자조단체를 조직, 자주적으로 집단거래행위를 하여 이익증진과 불리한 입장을 공동방위할 목적으로 모인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양계인은 아직도 지역내의 단합과 지역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서로 경쟁의식까지 갖고 불신을 조성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더욱 상인들의 농간에 잘 넘어가게 마련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작년에 아랍진영과의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여 그들의 국민성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자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인구가 많아서 국토가 커서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다. 다만 서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과 위기에 처했을 때 잘 뭉칠 수 있는 투철한 정신력 하나로 거대한 아랍진영과의 대결에서 패승을 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물론 양계업계에도 바로 이런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며 이번 연천분회회원의 정신이 첫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데 다른 모임보다 특색이 있다고 본다.

양계산업발전에 첫 관문이 회원간의 단합이며 앞으로 대한양계협회를 중심으로 지부, 분회, 각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합형태의 기구에 양계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증진과 아울러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단합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연천분회

양계산업은 타산업보다 비교적 경쟁이 적고 대체로 동일지역에서 거주하므로 공동시설, 공동방역, 공동구입(초생추, 사료, 약품등) 공동판매(계란, 계육, 폐계, 노계, 계분등)를 수행하기에 적당하며, 여기에서 오는 이익은 바로 회원의 이익이기 때문에 단합이란 소규모 생산자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임으로서 안정된 가격형성, 사양기술의 향상, 정보 수집 등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하겠다.

바로 연천분회 창립동기가 이러한데 있으며 분회장을 위시한 회원들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흐뭇한 감을 느끼며 또한 아직 단합되어 있지 않은 전국 여러 지역의 양계인들의 각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연천분회 현판식 장면)

◎ 연천분회의 창립동기

1969년경부터 육계의 군남이 활발해져 40여명의 양계가에 의해 40만마리의 규모까지 사육하는 대규모 단지가 형성 되었으나, 그때만하여도 현재와 같은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치열한 경쟁으로 출혈판매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 당시 전곡면에 위치한 육계처리장이 바로 군남의 유일한 창구 였으나 운영에 서행착오가 많고 71년부터 불어 닥친 불경기가 73년까지 여파를 미치다 보니 도산하는 사람, 휴업하는 사람, 등 대부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육계판로가 막혀자 상인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으며 이에 참다못한 몇몇 뜻있는 생산자들이 가칭 연천계우회를 조직 20여명이 발기인이 되어 76년 8월 1일에 창립총회를 갖고 본회에 분회가입을 촉구해 오던 중 금년 1월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천분회 가입이 승인되어 2월 15일, 오후 2시에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 426(전화: 전곡223, 215)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게 된 것이 그간의 연천분회 창립경과다. 이렇게 분회가 탄생이 될 때까지 수

많은 난관이 많았는데, 특히 작년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으로 인하여 출하가 막혀 생산자들, 이 곤경에 처하자 각 생산단지장들이 연일 회의를 계속하여 대책을 논의하며 관계부처를 방문 탄원을 계속할때 연천분회측에서는 전임 분회장이며 현재 전국면장으로 계시는 김정갑씨나 현회장 최태식씨는 한여름을 매일 9시까지 서울에 나와(연천과 서울간 약 2시간 30분 거리) 모시적삼을 온통 땀으로 적시며, 국회와 관계 기관을 찾아 진정을 하기위해 동분서주한 사실을 기자도 보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육계분과 각 단지장들이 모두 본 회 사무실에 모여, 자신들의 사업은 제쳐놓고 각 단지 회원복리를 위해서 철야 회의를 하면서 살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던 기자는 그분들의 열성에 감명을 받은바 있었다.

이러한 몇 사람의 노고가 결실을 맺어 육계업자에게 희소식이 전달되었다. 내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을 유보하여 도계장이나 생계상인 아무에게나 유리한데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며 또한 이결실은 여러 회원들의 보이지않는 뒷바라지에서 가능했다고 믿는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연천분회

분회와 30여명의 연천분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분회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라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연천분회는 현재의 단합의 기세를 몰아 계속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군납사업은 분회에서 많은 양을 납품할수 있을것으로 낙관된다고 한다.

또한, 현재 회원출자금이 100여만원이 되어 앞으로 시장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1980년도에는 도계장을 설치하여 유통구조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여유가 있는 자금은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을 쉼나갈 계획으로서, 자금이 부족한 회원에게 융자하여 주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고리대금의 사채를

이용하게됨으로서 이의 약점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횡포를 방지하며, 또한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방위성금이나 양로원등에 기부할 예정이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계통출하를 좀더 넓혀, 생체사육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분회 자금으로 사들여 출하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며 아울러 생산조절 및 가격조정의 선취권을 생산자가 갖고 중간마진을 없애는데 연천분회의 취지가 있다고 한다.

또한 철저한 방역사업을 벌여 연천군 일대의 질병을 공동으로 물리 치는데 노력할 것이라 하며, 본회에서는 자주 강습회를 각 단지 별로 실시하여 회원의 자질향상 및 사양 기술향상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연천분회원들의 바람이다.

◎본회에서 지정하는 우수한 사료, 부화, 제약회사와 직거래를 ……

본회에서 실시할 사료질 검사나 능력검정결과 또한 지정되는 우수약품업체를 선택 공동구입함으로써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중간상인의 이윤을 배제할 것이라 한다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 연천분회는 회원들이 총화로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분회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연천 분회원의 명단

임원진.

분회장 : 최태식

부분회장 : 김광혁

이사 : 임해빈, 이기룡, 김사만, 김유곤, 박창현.

감사 : 김광곤

총무 : 최창식

회원 : 김정갑, 이천영, 김해산, 정상현, 신형균, 김무경, 이홍규, 박경택, 이용호, 성영식, 박영준, 문경식, 손성남, 강규현, 이두현, 김하민, 김영을